

신안의 작은 유치원들,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성장하기

도약하는 작은 유치원들의 성장 기대하는 프로그램 운영 장산초·신의초·하의초 병설유치원의 합동 체험학습 추가

신안 장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지난 27일 '작은 유치원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합동 체험학습에 나섰다.

각 섬에 위치한 장산초 병설유, 신의초 병설유, 하의초 병설유 세 곳이 함께 협력하여 이번 체험학습을 계획, 추진하였다. 남악 신도시에 위치한 헬로방방 키즈카페에 모인 세 유치원은 서로를 소개하고 어울려 놀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장산초 병설유치원 유아 7명, 신의초 병설유치원 7명, 하의초 병설유치원 2명으로 총 16명의 아이들이 단위 유치원의 경계를 넘어 선 만남을 가졌다.

서툰 어색한 듯한 자기소개가 무색하도록 서로 어울리고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 오히려 다른 유치원 친구들과 함께 놀이할 때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이 유아에게 또래 관계 확장을 제공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능력 증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신안 지역 3개의 병설유치원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만난 것은 이번이 벌써 두 번째이다. 지난 만남에서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을 지속해 온 세 학교의 교사들은 작은 유치원 간 협력 프로그램이 유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의

미있는 연계를 선물한다고 말한다.

거점유치원인 신의초 병설유치원 문효현 교사는 "단위 유치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장소 및 기관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며 협력적 관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체험학습에 동참한 신의초 병설유치원 학부모 네티티 아키노(박지우 만5세)씨는 "다른 유치원 친구들과 어울려 놀이하면서 즐거워 보이는 아이를 보니 기분이 좋다."며 "함께 만나는 기회가 더 자주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산초 병설유치원 박정아 원장은 "유아수가 얼마되지 않는 섬 유치원 특성상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내고 다수의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연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프로그램의 의미를 개괄했다. "작은 유치원 협력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다른 섬 방문하기" 등 신안의 섬 유치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특색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신안=이덕주기자

화순오성초 병설유치원, 편안하고 행복한 심이 있는 저녁 돌봄 교실



화순오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유아 돌봄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고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녁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48명의 유아 중 11명의 유아가 돌봄 신청하여 참여

저녁 돌봄 교실은 학부모의 수요와 요구에 따라 2023학년도 공립유치원 돌봄교실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현재 48명의 유아 중 11명의 유아가 돌봄을 신청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과 학부모가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동일 시간(17:00~19:00)에 운영되고 있다.

저녁 돌봄은 다양한 놀이감과 자료, 간식을 제공하여 유아들이 유치원에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우리 집처럼 편안한 심과 돌봄을 겪고 있다.

저녁 돌봄을 신청한 학부모는 맛벌이로 내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이었는데 우리 유

치원은 저녁 돌봄을 운영하고 있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점이 좋다고 했으며, 학기 초 신청하지 못했던 학부모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저녁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어서 안심되고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화순오성초병설유치원은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좀 더 유아와 학부모님이 만족하는 돌봄교실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화순=박순철기자

강진중, 제9회 수학·과학융합 체험전



링 아트, 네온사인 만들기, 사교력마당에는 스토쿠대회, 보드게임1, 보드게임2, 과학탐구마당에는 과학올림픽, 슈링클스 키링, 크로마토그래피 부채 만들기 등을 주제로 하였다.

체험활동 마지막 7교시에는 체험 소감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만족스러운 부스와 그 이유, 이번 체험전을 통해 배운 수학 개념과 다음 체험전 때 바라는 부스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감을 작성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함수 그래프와 관련 있는 부스가 있으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부스를 운영하여 환경친화적인 체험전이면 좋겠다", "삼각등 만들기를 통해 정다면체를 배우니 재밌다"라고 밝혔다.

신윤희 교장은 "학생들이 이번 체험전을 통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직접 적용하고 탐구해 봄으로써 수학·과학 교과에 흥미를 느끼고 창의력을 키우는 경험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중학교는 제1회 전담수학축전이 개최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수학·과학 체험전을 운영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영암여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생맞춤형 진로 박람회 운영

1학년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박람회 진행

영암여고는 최근 교내 민담관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학생 맞춤형 교과 선택 진로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1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교시에는 전라남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위원이고, 대교협 대입 상담교사인 최대욱(해룡고) 강사를 초빙하여 고교학점제의 이해와 대비, 진로에 맞는 교과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

다. 이후 2시간 동안 교과 선택과목의 이해를 위한 부스 활동을 하며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과목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된 전교과의 교과서를 전시하여 학생들에게 미리 교과서를 살펴볼 기회를 주었다. 교과별로 마련한 부스에서 교과 담당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2, 3학년 교과 편제와 교과에

서 학습하는 내용, 교과 선택에 따른 진로와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3개년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며 선택 교과 체크리스트 작성하기를 통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교과 선택의 기회를 가졌다.

영암여고는 앞으로 2, 3차에 걸쳐 교내 진로 진학부장과 교과 담당교사의 상담을 통해 2, 3학년에 학습할 교과 선택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기자

강진중학교는 제9회 수학·과학융합 체험전을 2023년 6월 22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주제는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만지고 머리로 정리하는 수학·과학(부제: Everything starts from Math Education)이다. 수학, 과학 동아리 학생들이 11개(수학 8개, 과학 3개) 부스를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이날 강진중학교는 직접 만들고 탐구하는 과정과 쉽고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장을 만들었다.

부스 프로그램은 4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입체마당에는 뒤틀린 입체도형, 트랜스큐브, 심이면체 삼각등, 융합예술마당에는 스트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